

## 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 7강 깨달음의 영성

#### 1. 2년 vs 70년: “내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렘 28:11)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들과의 대결이라는 큰 테두리(렘 27-29장) 안에 속한다. 이 장은 하나님께 구원예언(1-4절)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5-9절)과 침묵(10-11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사실(12-14절)과 하나님께 죽음을 관한 진술(15-17절)로 구성되어있다.

예레미야 28장은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사 년 다섯째 달”이라는 연대진술로 시작한다. 여기서 그 해란 앞장인 예레미야 27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다와 함께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던 그해를 가리킨다(렘 27:3). 이는 주전 594년에 해당된다. 이때는 첫 번째 포로기(주전 597년)와 두 번째 포로기(주전 587년) 가운데 있는 시기에 속한다. 즉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을 비롯한 상류층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를 말한다(왕하 24:10-17).

따라서 1절은 예레미야 27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예루살렘 국제회의에서 이를 반대하며 홀로 나무 멩에를 매고 있는 예레미야의 참석을 전제하고 있다. 이곳에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포함한 나라들이 바벨론을 3대(본인과 그의 아들과 손자)에 걸쳐 섬겨야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렘 27:7).

3대란 약 70년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

즉 예레미야는 유다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야 귀환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서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확신하였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 간 여호와와 성전 모든 기구를 이 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렘 28:3).

이를 포함하여 그의 예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바벨론의 통치가 곧 종결된다.

둘째, 바벨론으로 탈취된 성전기물들이 2년 안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셋째, 여호야긴과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곧 귀환한다(2-3 절).

이는 당시 온 백성의 간절한 희망이요 염원이기도 하였다. 아마도 당시 국가적인 최고 현안의 기도제목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냐는 ‘기브온 맛술의 아들’로 소개된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구약성서 어디에도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베냐민 지역의 출신이며, 성전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로 나온다. 기브온은 유다에서 긴 역사를 지닌 유명한 성소였다(참조. 삼하 21:9; 왕상 3:4-5; 9:2).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태양이 잠시 머물도록 한 장소이며(수 10:12-14), 솔로몬에게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잘 판단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이기도 하다(왕상 3:4-15).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예레미야시대의 기브온은 상당히 발달된 와인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귀족들의 집들이 즐비했고, 거대한 저수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기근에도 문제없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오늘날 엘-집(el-Jib)을 가리키고, 이는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까운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아무튼 “기브온의 하나냐”라는 표현은 그가 번영된 도시의 성공한 예언자였음을 암시한다. 또한 하나냐란 이름의 뜻은 “아웨는 자비하시다”이다.

2절에서 하나냐가 사용한 “만군의 아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포괄적인 신명(神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 아웨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신명은 자신의 신리의 근거가 아웨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시고 시온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함을 드러낸다. 하나냐의 희망은 아시리아에 의한 엄청난 위기(주전 701년) 속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사 28:16).

하나냐의 선포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에서 알 수 있듯이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언자적 완료형’(prophetic perfect)은 2-3절의 약속이 확실히 실현될 것을 표현한다. 3절의 ‘이 년 안에’라는 기간 진술 또한 하나냐 예언의 확실성을 보증한다.

유대인 철학자 부버(M. Buber)가 언급했듯이 예레미야 일생의 최대의 위기는 ‘하나냐라고 하는 동료 예언자와의 격돌’이다. 이 격돌은 생명을 담보해야 했다. 즉 목숨을 건 대결이었다. 만약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와의 싸움이라면 두 진영의 갈등을 목격하고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 늘 홀로 서있고 늘 이상해 보이

며 불신까지 당했던 ‘왕따’ 예레미야와 몇 명의 공인된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인기 짝’ 하나냐와의 대결이다. 한마디로 ‘왕따’와 ‘인기 짝’과의 대결이었다.

현재의 본문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예언자와 같이(렘 23:14) 부도덕한 자로 말하지 않으며, 포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언자 아합과 시드기야 같이(렘 29:23) 비윤리적인 자로 말하고 있지도 않다. 하나냐는 예언자의 권위적인 언어(메신저공식)를 사용하고 있으며(“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자신의 예언이 확실함을 강조하는 예언자적 완료형(prophetic perfect)을 구사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두 명의 신뢰할 만한하고 진지한 예언자가 서로 맞서고 있다. 2년이나 70년이나? 이는 늘 옳고 그름의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 2. 전통기준과 성취기준: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렘 28:8)

이어지는 다음 단락(5-11절)은 하나냐의 확신에 찬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5절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한다”고 기술한다. 이는 예언자가 야웨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강조함으로, 예언자 대(對) 예언자의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자신의 예언과는 정반대인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뜻밖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렘 28:6).

이는 조롱하는 말투가 아니다. 애국자인 예레미야도 진심으로 자신의 예언보다는 하나냐가 말한 대로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행동과 인격의 외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거짓됨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만 제시한다.

첫째, 참 예언은 과거 위대한 예언자들 전통에 서야 한다는 ‘전통 기준’(Traditionskriterium)이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렘 28:8).

둘째, 평화(shalom) 예언일 경우는 반드시 성취되어 입증되어야만 그것이 진실임이 밝혀진다는 ‘성취 기준’(Erfüllungskriterium)이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렘 28:9).

이 기준은 신명기 신학을 계승한 것이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아웨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 18:22).

물론 성취 기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예언들의 충돌이 발생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성취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신다(암 7:1-3).

“2)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암 7:2-3).

예레미야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그 자리에서 당장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취하여 꺾어버렸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빼앗아 꺾고”(10절).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참 예언자들이 취하는 일종의 상징행위이다. 이는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의 멩에를 꺾어버리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멩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렘 28:11).

그런데 한 예언자가 또 다른 예언자의 상징행위를 파괴하는 일은 선례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상징행위에 상징행위로 맞선 것이다. 10-11절의 하나님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렘 27:12, 17)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한 것이다. 이 순간 예레미야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야만 했다(11b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代言)한다는 한 예언자의 주장이 진실한 지의 여부는

- (1) 그것이 어떻게 수령되었는지 또는
- (2) 그 예언이 어떤 정형공식문구로 표현되었는지에 근거해서만 결정될 수는 없었다.

또한

(3) 극적인 상징행위의 실연(實演) 마저도 예언의 진위(眞僞)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오직 전체적인 예언자적 전통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렘 28:8)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진경하고 권위 있는 앎을 제공할 수 있다. 예언은 보다 큰 모 집단(母集團)인 이스라엘의 예언전통과 분리되지 않고 깊이 관련되면서 경청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예언은 이전 예언들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점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가의 예언[미 3:12]처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과 관련되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진리의 계시는 역사적인 사실성(事實性), 즉 예언의 역사적인 실현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전통과 현실의 깊은 대화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 3.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렘 28:14)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꺾어버린 후에 야웨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였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렘 28:12).

이제 유다의 목에는 꺾어버릴 수 있는 ‘나무 멩에’가 아니라 더는 꺾어버릴 수 없는 ‘쇠 멩에’가 주어졌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멩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멩에들을 만들었느니라”(렘 28:13).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부동(確固不動)한 뜻이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렘 28:14).

들짐승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8절에서 언급한 종류의 신탁을 반복하여 선포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 예언한다.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야웨의 주권적 자유에 의해서 말씀이 새로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열방의 하나님이신 야웨 하나님에 의해서 전권(全權)이 주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은 들짐승들에게도 행사될 것이다(“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14절).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통치권이었다. 그 위에는 오직 야웨만 계실 뿐이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일종의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new adam)이 되었다.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이라는 예레미야의 판단은 유다 백성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야웨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성소를 포기하고 그 자신의 백성을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예레미야는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재 확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과 그 신과 언약관계에 있는 나라 사이에 형성된 전통적인 관계에 따르면 이것은 당연한 기대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럼으로써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심판을 가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님의 호의를 덧입은 백성(유다)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천하에 증거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참된 실재와 성품에 부합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은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복지와 평화일 수 없다. 이것은 거짓 복지요 거짓 평화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국가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섬김의 신실성이 부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하다. 신앙심이 애국심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운명도 그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한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시됨을 간파한다.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나라보다 더 우선이다.

#### 4. 참 신앙과 이데올로기: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렘 28:15)

마지막 단락(렘 28:15-17)은 마치 재판의 최종판결문을 보는 것 같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의 죄가 지적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렘 28:15).

16절에서는 하나님께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렘 28:16).

17절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렘 28:17).

15절에서 하나냐가 거짓을 믿게 했다는 비난은 하나냐를 특별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사기꾼이거나 민중 선동가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오히려 현실 인식과 밀착된 신(神) 인식이 문제였다. 예레미야의 적대적인 라이벌인 하나냐도 확고한 신학전승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순히 값싼 민간종교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이 본문의 저자가 진술하듯이 하나냐의 행동은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받고 있지 않다.

사실 하나냐의 선포는 시온은 적들의 공격에도 존속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선포와 유사하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냐의 선포에는 문제가 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앞선 선지자 이사야의 시온신학을 무분별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사야 당시와 자신이 놓인 현재의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상태와의 심오한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다. 하나냐는 당시의 공동체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분별없이 기존전승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분별한 반복은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이전의 말씀인 예레미야 13:25에서 거짓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연관시킨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렘 13:25).

하나냐의 죄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왜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설교에 해당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준다. 신명기 13:1-5에 따르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한 예언자는 야웨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선동한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다.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2)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꺾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신 13:1-5).

하나냐가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이러한 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되었기에 사형이 선고된 것이다. 거짓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하나냐의 힐링(healing)의 메시지는 결국 자신과 백성을 죽음으로 몰

아가는 킬링(killing)의 메시지가 되었다. 거짓된 힐링은 킬링이 된다.

## 나가는 말

예레미야의 입장은 당시의 다수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외로운 목소리였고, 그 어떤 동조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진실을 위해서 투쟁했던 예언자였다. 그는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한 확신에 찬 다수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그는 기존 예언전승(8절)과 더불어 겸손히 역사 속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아웨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였다(12절).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

이에 반해 하나냐는 과거의 전승에만 매인 나머지 새로운 역사 속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다. 어제의 신앙적 확신은 오늘 우리들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하나냐는 기존의 신학전승을 분별없이 되풀이만 하였다. 이는 참된 신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으며,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신앙전승은 역사 속에서 늘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말이다.

참 예언자는 주문받는 대로 답하지 않는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생겨야 비로소 대답한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한 이후(주전 587년 이후) 유다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줄 것을 부탁한다. 백성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깨우쳐 주기를 주문한 것이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드디어 1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십일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렘 42:7).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까지 기도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의 확신에 찬 거침없는 행동과 예레미야의 우유부단해 보이는 신중한 처신이 대조적이다. 하나냐와 같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주장과 이데올로기에 매인 나머지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선배 예언자의 말씀에 철저히 뿌리를 내리고,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세를 취한다. 오늘의 말로 하면, 기록된 말씀(성경 연구)과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깨달음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 50:4).